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처벌'

정부 합동, 해외불법사이트 단속 풍선 효과 강력 대응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토렌트 사이트 폐쇄
향후 2~3년간 모니터링·주요 침해 사이트 집중 점검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집중 단속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단속을 실시한다.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문체부는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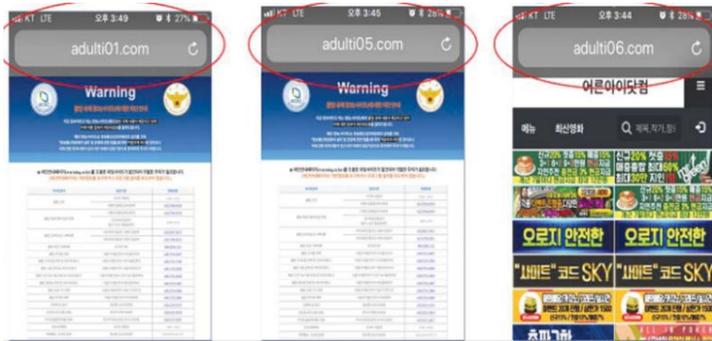
◇향후 2~3년간 풍선효과 모니터링 및 추가 단속 실시

정부는 지난 6월 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뉴스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군산대 가족회사와 함께 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17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서 임직원·가족 초청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군산시청이 오는 17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군산대학교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위축된 군산지역 제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산학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계하고, 군산대학교 가족회사 800여 개 중 군산 소재 337개 회사 임직원 및

가족을 초청해 진행된다.

김동익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은 "교직원과 가족회사와의 다양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음악회 개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음악회에는 군산대 교수합창단이 찬조 출연하고, 주제의 경기병 서곡 등 10여곡이 군산시립교향악단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LINC+사업단과 익산문화원이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 익산문화원과 문화발전 MOU 체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LINC+사업단과 익산문화원이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원광대 회의실에서 열린 교류회는 지역 고유문화 보존과 함께 지역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류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송문규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겸 LINC+사업단장과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지역사회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비롯해 지역 문화 관광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문규 단장은 "지역사회의 주요 문화기관인 익산문화원과 함께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리 항재

줄종류를 비롯한 익산 고유 전통문화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문화콘텐츠 사업을 전문문화로도 확대해 인력양성과 함께 산학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문화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지역 대표 사학인 원광대와 함께 지역 문화에 대해 공동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익산 고유 전통무형 유산 보존을 위한 공동사업과 지역사회 수요의 인재를 양성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유병희 기자

삼례책마을 '2018 책의 해' 공모사업 선정

완주군, 사업비 2천만원 지원받아... 시설 개선·사업 활성화

완주군 삼례책마을협동조합(관장 박대현)이 '2018 책의 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완주군은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18 책의 해 공모사업은 시민 책·독서 프로그램 공모지원, 지역별 책 플러스 네트워크 발족, 책마을 지정 시범사업, 지역 책 축제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4가지로 진행됐으며, 삼

례책마을협동조합은 책마을 지정 시범사업 지원 부문에 선정돼 사업비 2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설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례책마을협동조합은 지난 2016년 8월에 개관한 뒤 고서점, 헌책방, 책박물관, 북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